"지하수 초과 사용했는데도 행정은 방관"

도의회 행조특위, 대규모 개발사업장 증인신문
동물테마파크 등 뭇매… "관리감독 부실 드러나"

도내 17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제주도의회 행조특위)의 증인신문 조사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사업장에 대한 행정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조특위(위원장 이상봉)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사업자 중심의 정책 추진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또 관광산업 미래비전 부재, 의회견제기능 무력화, 지하수 정책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히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주민들의 찬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뭇매를 맞았다. 잦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비롯해 지하수 초과 사용,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 협의 허위보고 등의 문제 제기에 초점이 집중됐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2016년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파악하기로는 새로운 사업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아는데, 실무진에서는 기존 사업 내용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했다.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지하수 사용량이 허가량을 초과했음에도 행정이 방관하며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도 꼬집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말 중심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 야생동물 사파리로 변경된 것이 문제가 있다"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반대하고 도민들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잦은 사업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가 방관한 것인데 피해는 도민이 본다"고 질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경선 (주)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는 의원들의 질의에 "지금 사업계획은 기존 보다 개발면적, 동물 마리수 등을 줄이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외에 개발사업심의회의 역할 미흡, 재해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부실, 대규모개발사업의 의회 사전심사 기능 무력화, 사업장 부지 내 공유수면 포함 경위 관련 위법성 여부, 투자진흥지구 제도 사후관리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이상봉 위원장은 "지난 8월 1차 증인신문에 이어 이번 증인신문에서도 관광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행정의 무능함이 여실이 드러났다"며 "특히 관광산업과 관련한 도민 중심의 철학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장기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설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행정행위로 다양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업무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도내 17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증인신문 조사를 진행해 사업자 중심의 정책 추진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 문제 등을 집중 다뤘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국회서 4·3의 아픔 증언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오영훈 국회의원 주최·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주관 '국내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행사에서 제주4·3 유족 김을생씨(84·사진 가운데)가 증언을 하고 있다. 부미현기자

"수도권 쏠린 IP 금융 지원… 제주 소외"

<지식재산>

위성곤 국회의원 지적
지난해 담보대출 전무

IP(지식재산)금융(보증·대출·투자) 실적이 수도권으로 쏠려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사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IP담보대출 884억원 가운데 72%에 달하는 634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IP 금융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와 등급을 평가하고 보증·대출·투자를 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이 중 IP담보대출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같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담보로 시중은행이 대출을 시행하는 것으로 2018년 기준 권역별로는 경상권이 127억원(14.4%), 호남권 62억원(7.1%), 충청권 42억원(4.8%), 강원 18억원(2%) 순이며 제주는 한 건도 없었다.

IP사업화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방식인 IP투자의 경우 2018년 기준 1856억원 투자금액 가운데 수도권이 1427억원(76.9%)로 쏠려있고 경상권이 178억원(9.6%), 호남권 51.5억원(2.8%), 충청권 199억원(10.7%)이며 강원과 제주는 전무했다.

위성곤 의원은 "IP금융 활성화 정책은 부동산 같은 담보가 없는 스타트업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지방의 기업은 벤처인프라에 이어 IP금융 인프라 지원에서도 소외됐다"며 "특허청이 금융위·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방의 IP금융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LNG연료 공급관로 매설 두고 주민 반대

남제주복합발전소 건설 난항
안덕 5개 마을 "안전성 우려"
가스공사 "지속적 주민 협의"

2020년 제주지역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 전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남제주 LNG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이 난항이 예상된다.

남제주 LNG복합발전소는 완공된 이후 제주시 애월항 소재 한국가스공사 LNG인수기지에서 남제주 LNG복합발전소가 소재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까지 연료(LNG) 공급관로를 연결·매설해 연료를 공급받을 계획이지만, 매설 대상 지역인 안덕면 5개 마을이 안전과 인허가 문제 등의 이유로 연료 공급관로 매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남부발전(주)·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남제주 LNG복합발전소의 연료(LNG)는 애월항 LNG 인수기지에서 LNG복합발전소가 소재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까지 연료 공급관로를 통해 공급받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덕면 지역의 화순리·감산리·상창리·광평리·동광리 등 5개 마을에는 연료 공급관로가 매설될 예정인데, 각 마을에서는 연료 공급관로에 대한 안전성과 매설 이후 각종 인허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연료 공급관로 매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태종 감산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료 공급관로) 설계도를 보면 마을 중심지를 관통하게 설계돼 있다"며 "만약에 연료 공급관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상창리장은 "어느 누가 자신의 집 앞마당에 위험 시설이 매설되는 것을 좋아하겠냐"며 "LNG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강경보 화순리장·박병선 동광리장·정대수 광평리장은 "연료 공급관로가 마을 내에 들어오며 여러가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개발을 위해)허가를 받을 때에도 연료 공급관로가 매설돼 있어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남부발전 관계자는 "연료 공급관로 매설과 관련한 시공은 한국가스공사가 맡고 있다"며 "그렇지만 한국남부발전도 LNG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손해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주민들을 만나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사업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안덕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연료 공급관로 매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국제보호지역 연구센터 유치 활동 본격

제주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이하 센터)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지난달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의 일환인 센터 유치 계획은 제주도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전 세계 국제보호지역 관리자의 역량 강화와 보호지역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센터 활동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업비는 2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9월 30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리며, 4일에는 '국제보호지역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국제보호지역 관리 사례 공유와 국제보호지역보전과 지역사회 발전방안 논의 등이 이뤄진다. 국내 국제보호지역 관리자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개도국 국제보호지역 관리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진기자

三 姓 祠
秋 期 大 祭

귤향 가득한 풍요로운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귀하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高·梁·夫三姓祠財團에서는 탐라(탁라)를 창시하신 三乙那의 위업을 기리고 추원하는 **2019년도 삼성사 추기대제**를 다음과 같이 봉향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2019년 10월 10일(목) 10:00**
■ 장 소 : **삼성사 삼성전 (제주시 소재 삼성혈)**
■ 헌 관 : 초헌관 夫 萬 根 (濟州市)
아헌관 高 成 富 (濟州市)
종헌관 梁 漢 珍 (濟州市)

※2019.10.10.추기대제 시 제주도민은 삼성혈 무료 관람입니다.

2019. 10. .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
이사장 고 정 언

제주마의 본향 의귀리
제4회 헌마공신 김만일배 전국승마대회
2019년 10월 3일(목), 4일(금), 9일(수) 3일간
장소 옷귀馬테마타운
주최 | 주관
의귀마을영농조합법인
헌마공신 김만일배 조직위원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마사회
문의
옷귀마테마타운(070-4233-9777)
총무이사 오석훈(010-3036-5027)